

2023년 사회지표로 본 광주·전남 지역민

일자리·물가·교통 '삶의 만족도' 하락

지난해 광주·전남 지역민의 삶이 팍팍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타널'을 벗어났지만 가계 소득이 준 데다 자영업자 폐업은 속속하고 일자리를 구하기는 하늘에 별따기였다.

3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공개한 '2023 광주·전남 사회지표'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민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6.28점으로 전년 조사때보다 0.07점 떨어졌다. 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분야별로 광주·전남 2만 4021 가구를 표본조사한 결과다.

광주시민들의 소득 만족도는 19.9%에 그쳤고 40.3%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한 달 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2% 늘었지만 200만~400만원 월 평균 소득 가구는 3.4% 줄었다.

반면 월 평균 600만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2.1% 증가해 소득 양극화를 반영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은 소득 감소로 폐업을 고민하고 있고 일부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광주시 북구 대촌동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해 2월 폐업했다. A씨는 "코로나 시기를 버텨냈지만, 손님은 늘지 않아 결국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르고 임대료도 올라 도저히 가게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물가에 식료품비 지출이 4.7% 늘어 전체 소득의 49%를 식료품 구입에 지출하는 등 가계에 큰 부담이 됐다.

광주 지산동에 거주하는 B(여·43)씨는 "월급은 몇 년째 그대로인데 식료품비는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반찬을 많이 만들기도는 밥과 메인

광주 시민

소득 만족도 19.9% 그쳐

40.3% "생계 유지 어려움"

주차문제·소음 등 불만 높아

전남 도민

39.3% "일자리 충분치 않다"

중년 여성 단기·계약직 전전

"안정적 일자리 간절" 하소연

메뉴 하나만으로 한끼를 때우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광주시민 중 40.3%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에 대한 애로사항도 컸다. 광주시민 47%는 "거주지에서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희망직종·고용조건이 맞지 않고(52.0%), 일자리가 부족하다(13.5%)는 것을 이유로 꼽았다.

일자리 부족은 전남도민도 마찬가지였다.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도민은 39.3%로 충분하다고 응답한 도민(18.2%)에 비해 높았다.

광양시 중마동에 사는 C(여·51)씨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없어 불안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취업

을 위해 습득한 자격증도 많고 업무 경력도 있지만 50대 여성이라는 이유로 반반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사로 일했던 C씨는 1년 단위 공공기관 계약직을 전전하고 있다.

C씨는 "광양은 전남에 비해 젊은이들이 많다 보니 중년 여성들은 매번 단기간, 계약직 업무만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년들이 나이가 들어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간절하다"고 하소연했다.

광주 시민 64.8%가 자가용을 소유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 지역민들이 거주지에 느끼는 불만은 교통문제가 가장 컸다.

교통사정(28.7%), 주차시설 부족(21.6%), 소음·매연(14.7%)순으로 불만이 높았다. 면적이 좁은 동구는 편의시설이, 서구는 주차시설이, 남구와 북구, 광산구는 교통사정이 주된 원인이었다. 시민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주차·불법운전에 대한 단속(41.5%)과 주차시설 확대(22.1%)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광주시 북구 용봉동에 사는 D(71)씨는 지난 2일 광주북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주차를 하지 못해 한참을 망망 돌아야 했다. D씨는 '만차' 팻말이 적힌 경찰서 입구에 차를 세워두고 주차요원과 승강기를 벌였다.

D씨는 "북구 인구가 42만명인데 민원인 주차장이 10대 남짓인데 말이 되냐"면서 "경찰관들은 전용 주차장이 가득차면 민원인 주차장에 주차하면서 민원인들은 다음 차가 빠질 때까지 경찰서 앞에서 마냥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경찰서에 일을 보러 왔다가 주차에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법인차용 연두색 번호판 3일 오전 광주시 북구 용봉동 북구청에서 직원인 법인 승용차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고가 법인차 사적 사용 및 탈세 방지를 위해 공공·민간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의 업무용 승용차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489명 집단 식중독...도시락 업체 '영업정지'

광주·전남지역 근로자 등 수백명에게 식중독을 유발한 광주시 광산구의 한 도시락 납품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광주시 광산구는 A도시락 납품업체에게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A업체는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A업체는 지난해 9월 26일 광주·곡성·장성 제조업체에 도시락을 납품했고 이를 먹은 489명이 식중독 증상을 보였다.

보건당국이 식중독 증상을 대상으로 검체를 분석한 결과 살모넬라균(식중독 원인균)이 검출됐다. A업체의 조리도구에서도 같은 균이 확인됐다. 집단식중독 발생 이후 영업을 중단해온 A업체는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되면 폐업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구는 A업체가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남구, 31일까지 '소원 성취' 걷기 챌린지

광주시 남구가 주민을 대상으로 새해 소원 성취를 비는 걷기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남구는 2024년 걷기 운동 생활화를 위해 '워크온 챌린지' 행사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챌린지 미션(10만보)을 완수하는 2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5000원)을 지급한다.

참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며 모바일 걷기 플랫폼인 '워크온'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10만보를 걷은 뒤 워크온 내부 커뮤니티인 '남구를 다감는다' 게시판에 새해소원 3가지를 함께 올리면 된다. 다만 하루에 인정되는 걸음수는 1만보다. 문의 남구 건강증진과. /김다인 기자 kdi@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2주기 추모식 11일 개최

아파트 진입로 인근 지하주차장서

신축중인 아파트가 무너져 노동자 6명이 숨진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 2년을 맞아 추모식이 열린다.

화정아이파크 희생자가족협의회는 11일 오후 3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참사 2주기 추모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행사는 철거·재시공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광주시 서구 화정동 화정아이파크아파트 진입로(6게이트) 인근 지하주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 1주기 추모식은 사고가 발생한 201동 인근에서 열렸으나, 올해는 현장에서 철거 작업이 이뤄지고 있어 추모식 장소를 옮겼다.

추모식 당일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현장에서 작업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안정호 희생자가족협의회 대표는 "동구 학동과 화정아이파크 사고 이후로도 이태원, 오송 참사 등 사회적 참사가 잇따라 마음이 아팠다"며 "기억하지 않으면 참사는 반복된다. 추모식이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지난 2022년 1월 11

일 발생했다. 신축 공사 중이던 아이파크 아파트 23~38층이 무너져 현장 노동자 6명이 숨졌다.

당초 2027년까지 철거·재시공 및 입주까지 마칠 예정이었으나, 주거부 부분 철거에서 주상복합상가를 포함한 지상부를 전면 철거하기로 해 완공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범위가 확대되자 관할청인 서구에 추가 철거작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다. 3일 현재 101동(선행동)은 11개층, 나머지 동은 2~3개층에 걸쳐 철거가 진행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자 이호동 | 삽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